

“아이들 미래 위해 가난과 저학력 사슬 이젠 끊어야죠”

③ 마음껏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1 파일럿이 꿈인 이민규(가명·초교 1년)군. 이군은 얼마 전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로부터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3월 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진 뒤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이군은 “돈이 없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뒤 학원에 다닐 생각을 접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국인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다. 이제 이군의 소원은 ‘파일럿’이 아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됐다.

#2 지난 2002년 필리핀에서 시집 온 리사(가명·30)씨의 아들 강유석(가명·9·초교 2년)군. 강군의 학교 성적은 반에서 최하위권이다. 강군은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성적이 중상위권이었던 2학년에 올라가면서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강군의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더구나 강군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로 바쁜 탓에 집에서 동생(3)까지 돌보고 있다. 강군은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3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한준수(가명·7)군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초등학교 입학이 두렵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이다. 한군의 어머니 역시 한국으로 시집온 지 7년이 지났지만 익숙하게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 그녀는 남편이 외출을 싫어하는 탓에 정식으로 한글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한군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한국인이 한글도 모른다’는 놀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매일 괴롭다.



20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인 ‘순천 외국인 한글학교’의 한글 수업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정원이 60명에 이르지만, 최근 추수철이 되면서 이주여성들의 참여율이 크게 떨어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력·경제력 뒤진 교육환경 대물림 안되게 취학·학업성적 관리 등 맞춤형 지원 절실

국제결혼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2세들이 대거 취학 연령에 접어들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2세들의 경우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비해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이 뒤져 있다는 점에서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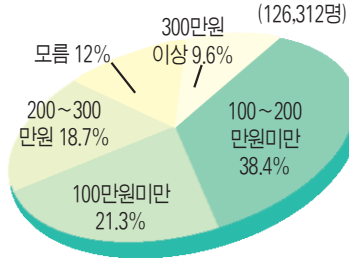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의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2.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이하(36.1%), 대학

이상(20.6%) 등의 순이었다. 이는 전체 이주여성 10명 중 8명 가량이 고졸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국인 부부의 학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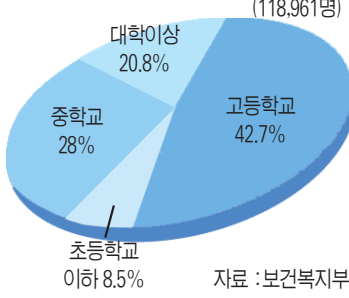
다문화가정의 열악한 경제수준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인 38.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21.3%에 이른다. 한국복지패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332만2000원이다.

다문화가정의 주거 소유형태 역시 본인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가 33.0%, 전세나 월세가 42.2%, 배우자의 부모 소유가 19.5%로,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 비율(55.6%)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 (126,312명)



■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의 교육수준 (118,961명)



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2세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과의 교육·경제수준의 격차로 인해 다문화가정 2세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당국은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2세들의 취학을, 진학을, 학업 성적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에 제출한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교육 당국이 ‘학력 위기학교’로 판단한 초등학교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집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기초학력 학생 미달 비율이 30%(초등학교는 10%) 이상인 ‘학력 위기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두 51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주(1곳)와 전남(10곳)·북(13곳) 지역 학교는 총 24곳으로, 전체 학력위기 학교의 45%에 달했다.

전남·북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결손가정 학생들이 많아 학교 전체 기초학력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경우 초·중·고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2892명 가운데 초등

학생은 2337명으로 전체의 81%에 달했으며, 학생 90%의 어머니는 외국인이었다. 전북은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1674명 중 외국인 어머니 비율이 97%에 달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의 상당수 이주여성들은 생계와 배우자의 반대 등으로 인해 마음놓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19일 순천의 한 교회에서 이뤄진 한국어 및 한국사 교육 프로그램에는 전체 이주여성 정원 60명 가운데 20여명만 참여했다. 최근 추수철로 접어들면서 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농사일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순천 외국인한글학교’를 운영 중인 문양철 교사(54·순천매산고)는 “다문화가정 부모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여서 자녀 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자녀들의 성적부진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



지난 19일 ‘순천 외국인 한글학교’를 찾은 이주여성들이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이 없어 아이와 함께 한글 수업을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다”라고 말했다. 문 교사는 또 “이주여성들이 집안일에 치여 한글 수업조차 마음놓고 참여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자녀와의 대화 단절 등 심각한 가족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칼과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 92.9%가 효과 확인

구분	비율
매우호전	2.94%
호전	27.65%
약간호전	62.35%
기타(호전없음, 악화)	7.06%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중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외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여대 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문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교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나다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검색어: 검색

제품문의 | 080-024-5525
02-2600-3884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